

정례브리핑

2021.7.2.(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배포해드린 통일국민협약안과 관련하여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남북 간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해나가기 위해 추진된 사회적인 협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보수, 진보, 중도의 시민단체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초당파적인 모임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사회 주관하에 2018년부터 지난 4년간 연인원 약 6,000여 명의 국민들이 60여 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 사회적 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6일에 통일국민협약안과 관련된... 통일국민협약안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고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16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8개 분야, 29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권고문에는 정부, 지자체, 국회, 비정부기구, 국민 등을 대상으로 23개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안을 마련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사회 등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5일 오전에 통일부를 방문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동 협약안과 권고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달받은 이 협약안이 더욱 각계에 확산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토론회, 각계 전문가들의 포럼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차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이고요.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보훈처가 주최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동 행사에서 통일부 차관은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명패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보도에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 사실 확인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

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기사 내용에서 화상회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도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답변> 현재 남북회담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은 이미 작년부터 예산문제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해온 사안이었고, 올해 초에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 관련 계획을 보고하고, 동 사업이 추진된 내용입니다.

올해 4월에 영상회담, 남북회담본부에서 영상회담 시연회를 통해서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SBS 보도에서 북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사실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동선까지 빼간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관련된 관계당국에서 대통령님 동선과 관련된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관련된 전체적인 것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그저께 북한... 며칠 전에 북한에서 정치국 확대회의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작년 10월 정도에 일본 매체에서 김정은이 주최한 회의 내부 문건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코로나가 북한에서 확산이 되는 것을 실제로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그 관련 보도는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가 확인하신 것이나 아니면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WHO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직 북한 내에 확진자는 0명인 것으로 일단은 WHO에서는 보고하고 있고, 지난 6월 29일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비상 방역의 중대 사건, 그리고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이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지금 여쭙본 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 내용이 쪽 나왔는데, WHO는 특히나 0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약 3만 명을 검사했는데. 제가 여쭙보는 것은 작년 10월에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가 지난해 7월에 있었던, 7월 25일에 있었던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한 말이라면서 '북한에서 코로나가 결국에는 전파가 됐다, 확산이 됐다.' 이렇게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쭙보는 겁니다.

<답변> 지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난해 7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질문> ***

<답변> 보도가 확인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질문> ***

<답변> 하여튼 교도통신의 내용을 제가 잘,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다른 매체든 지금 말씀하신, 기자분이 보도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지금 공개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사실을 말했다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됐다.', 혹은 '전염됐다.'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는 것은 지난해에 비공개 확대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만 배포가 된 것들

이 유출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쪽에, 우리 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답변> 그러한 북한 내부의 동향이나 어떤 정보, 각종 전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남북 간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했는데, 통일부 차원에서도 이런 연락선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연락선이 단절됐잖아요. 아직 현재까지도 단절된 상태인 건지, 통일부 차원에서 연락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작년 6월에 남북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이 차단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상황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끝>